

남성 독거노인의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본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 서 현¹⁾

질적연구HA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독거노인이 협동조합 공동체를 통해 경험한 노년기 사회적 활동이 갖는 의미와 그에 따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연구는 Giorgi(2009)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협동조합 공동체에서 활동 중인 남성 독거노인 8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개별 심층면담 수행 후, 원자료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세상과 단절된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였으며, 소통을 통해 성숙한 주체로 거듭났다. 이는 타인과 함께 공동의 활동을 함과 동시에 가치 지향적 사회적 역할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것은 친밀한 공간을 함께 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과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고독한 시간을 협동조합 공동체를 통해 위로와 용원을 받았으며, 이는 서로에게서 발견하는 자기 가능성과 가치 있게 삶을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자기 존재 확인, 가치 있게 늙어가는 노년,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기반 협동조합 마련에 관한 논의와 제언을 했다.

주요어 : 남성 독거노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 현상학적 연구

*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내용을 보완한 것임.

1) 교신저자 : 질적연구HA연구소, 책임연구원 (E-mail: zeze@skku.edu)

I. 서론

생산성 이론이 노년학은 물론 노인복지학의 주된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이후, 한국의 노인은 물론 세계 각국의 노인들은 생산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의 구조 속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적 활동의 강요는 은퇴한 노인들로 하여금 그간의 수고에 대한 위로와 지지보다는 은퇴 후에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의 압박은 저출산 고령화의 단상으로 인해 생산인구의 감소, 수명 연장으로 인한 생산적 활동 기간의 증가와 함께 수반된 노인 돌봄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만 15~64세)는 2017년 하반기부터 감소추세에 접어들었으며, 핵심생산인구 또한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20년에 이르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년생이 만 65세가 되어 사회적 활동에서 벗어나게 되는 때와 맞물려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증가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자녀에게 돌봄을 받아야하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부모와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박현식, 2012).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모든 노인세대와 노년을 앞둔 장년 후기 개인들에게 문제

가 되고 있지만, 특히 신체적 악화, 무능감, 우울, 외로움과 동시에 빈곤문제를 가지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Hays & George, 2002). 독거노인 경우 취약한 사회적 지원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빈곤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Haslbeck, McCorkle, & Schaeffer, 2012). 이와 같은 문제는 여성, 남성 노인을 불문하고 공통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Bitzur & Fisher, 2018), 한국의 남성노인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가치관, 사고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김형숙, 전경자, 김윤미, 2013). 그러므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남성 노인들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경향이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려는 노력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석재은, 장은진, 2016). 이러한 특성은 남성노인, 특히 독거노인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인 동시에 구조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와는 환경이 다른 서구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Springer & Mouzon, 2011). 남성노인은 전통적인 남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사회와의 관계 맺기보다는 자신의 세계만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사회적 활동의 영역과 참여 정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pson & Whearty, 2004). 따라서 남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원 및 관심과 관련하여 성공적 노화이론과 활동이론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 및

노인의 가치 찾기를 위한 방안으로 많은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론적 관점은 노인에게 성공적이며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노년기를 보낼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더불어 성공적이고 생산적 활동을 하는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성화(Helliwell & Putnam, 2004)와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활동(Seeman, 2000)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천적 관점을 수용한 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원봉사 활동을 확장하여 노인의 능동적 사회 참여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좁은 선택의 폭, 한시적 참여, 공익형 일자리에 집중했다는 한계를 가져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호태, 2012; 이석민, 원시연, 2012; 전형남, 2017).

최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민주적 결사체로서 사회적 통합의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은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소유자와 기능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중, 1991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캐나다에서는 연대협동조합, 프랑스에서는 공익협동조합의 형태로 성장하여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강민수^a, 2016).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신고를 통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성장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2007

년 5월 포항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를 시작으로 현재 13,717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협동조합, 2018). 이러한 성장은 협동조합이 내부적으로는 '1인 1표제'로 스스로 권리를 가지면서 공동의 이익과 협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조직체로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됨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긍정성을 바탕으로 노인 협동조합이 노인의 사회적 역할 정립 및 사회·정서·경제적 자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노인들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원주 노인 생활협동조합, 회현당 사회적 협동조합, 여민동락 협동조합, 더함플러스 주택협동조합 등이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노인 협동조합은 노인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된 일종의 경제 공동체로서 노인들이 경제 수준의 향상은 물론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게 하여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신명호, 이아름, 2013; 이양지, 2016; 정석규, 임유진, 황소영, 2006).

이처럼 노인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의의와 관심이 증가했지만, 이를 주제로 한 연구(김영택, 2017; 박봉희, 2016; 박주희, 2012; 변정원, 2009; 신명호, 이아름, 2013; 이양지, 2016)는 그 관심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주된 연구동향은 노인 공동체 활동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인 공동체 관련 연구는 크게 노인

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에 관한 연구(김영란, 2013, 2014; 이양지, 2016; 정석규, 임유진, 황소영, 2006; 지경, 2011; Grenade & Boldy, 2008), 노인 공동체 사례에 관한 연구(김진복, 1993; 이진숙, 2010), 노인 공동체 참여 경험 및 탐색 연구(김서현, 조희선, 2017; 김유진, 2016; 변정원, 2009; 유은주, 김미영, 이진정, 2013; 장수정, 2012; Collings, 2001; Lee, 2011), 노인 공동체 활동을 통한 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이정희, 2016; 이형하, 2005), 노인 공동체 활동의 효과성 연구(정인수, 박선희, 윤혜림, 2012)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노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활성화 방안, 사회적 노력을 위한 제안을 함으로써 노인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고, 그 내용이 대부분 외부자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노인 중심 협동조합과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음은 성공사례가 많지 않고, 이제 시행 초기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의 자립과 공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인 협동조합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노인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의 약화로 물질적·정신적 지지를 받기 힘든 남성 독거노인(손정남, 2012; Jeon, Jang, Rhee, Kawachi, & Cho 2007)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공동체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그들이 인식한 주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므로, 외부자적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실질적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orgi (2009)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남성 독거노인의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경험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남성 독거노인의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Giorgi(2009)의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은 인간이 가진 의식 속에 드러난 현상이 의미하는 본질을 기술하는 방법론이다. 이는 체계적이며 분석적인 연구방법을 구성하고 있어 과학적 설득력을 갖는다. Giorgi의 현상학은 현상의 외현적 내용보다는 당사자들이 주관적 세계에서 구성한 현상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집중적으로 추구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연구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해석적 동물이다(Palmer, 2011). 특히, 노인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구체적 사건의 내용, 원인, 결과 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의미를 찾는 경향이 매우 높다(정영숙, 조설애, 안정신, 정여진, 2012). 본 연구 역시 노인들이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

을 연구함에 있어 이와 같은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했다.

2. 연구대상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네트워크 표집방법을 적용하였다. 네트워크표집 방법은 인간은 모두 연결되어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둔다. 이는 소개자(hub)를 중심으로 연결된 연구 참여자(nod)를 찾아 선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00시의 허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중, 사업비 마련을 위해 빈병, 신문, 캔 등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공동체 대표자(hub)에게 연구자의 참여자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nod) 5명을 소개받았으며, 이 대상자 중 2명이 새로운 소개자(hub)가 되어 3명(nod)을 소개하고 그 중 2명이 각각 1명씩 소개를 해주는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 주제에 적합한 총 8명의 참여자가 선정되었다(표 1 참조). 연구자는 참여자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공동체 참여기간, 공동체 내의 역할, 독거기간, 연령, 직업 등이 가급적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공동체 활동 모임에 참여하여 직접 그들의 활동을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따라 공동체 활동을 하는 남성 독거노인에 대한 다양한 경험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3. 자료수집

연구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했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집에서 면담을 실시했다. 연구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질문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연구 참여자가 모두 고령자였으므로 그들의 연령을 고려해 면담은 평균 30분 내외로 진행했으나 적극적으로 면담에 참여하는 대상은 60분 이상 진행하기도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세)	독거기간	전 직업	현 직업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 기간
참여자 1	71세	29년	회사원	환경 정비	3년
참여자 2	78세	2년	직업군인	노인정 관리	3년
참여자 3	86세	2년	식당운영	없음	3년
참여자 4	85세	16년	개인사업	주택관리	3년
참여자 5	78세	21년	군무원	없음	3년
참여자 6	83세	4년	공무원	건물관리	2년
참여자 7	95세	4년	일용직	없음	3년
참여자 8	74세	6년	회사원	없음	2년

했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12 시간 내에 전사하여 본 연구의 원자료를 구성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남성 독거노인의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Giorgi(2009)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Giorgi가 제안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적용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 관점에서 구술 내용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읽어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것의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강조하거나 전환되는 의미들을 중심으로 활동 경험에 관한 ‘의미단위’를 구성하였다. 셋째, 의미단위를 연구자의 언어로 전환한 뒤 구체화 시키고, 중복되거나 구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삭제한 뒤 공통적인 의미단위로 요약하고 결집하였다. 넷째, 변형되어 드러난 주제를 일관된 구조로 통합하여 개별적 경험의 본질인 상황적 구조진술과 공통적 경험의 본질인 일반적 구조진술로 구성,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적 구조를 제시했다.

또한, Giorgi는 현상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Husserl이 제안한 판단중지(epoche)를 변형하여 현상학적 괄호치기(phenomenological bracketing)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연구자의 선이해, 편견, 학문적 관점을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세간의 주된 평가, 가치관 또한 내려놓고 철저하게 객관화된 상황에서 현상을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전체 탐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향을 준수하였다.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기술에 있어 현상학적 민감성, 즉 읽는 이로 하여금 수궁하게 할 수 있는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들 중, 소설적 글쓰기(김영천, 2013)를 이용한 서사적 글쓰기로 현상을 기술할 것이며 특히, 일화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밝힌다. 일화적 글쓰기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연구자의 설명보다는 그 의미가 내포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드러난 의미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Ely, 2006).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및 엄격성 확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보호와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연구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시행하는 연구윤리 온라인교육(<http://edu.irb.or.kr>)을 수료하고, 윤리기준을 준수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를 기호화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별도의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수행의 목적과 연구 진행 계획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으며 자유롭게 연구의 탈퇴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린 뒤 서면 동의를 받고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 Liebow(1993), Denzin(1987), Padgett(1998)이 제안한 방법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였다. 첫째, Lincoln과 Guba(1985)가 제안한 연구자의 정직성을 유지하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온 전문가 1인과 질적 연구자 1인으로 동료집단을 구성하여 조언 및 지지를 얻었다. 둘째, Liebow(1993)가 제안한 바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반응성을 최소화하고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관계형성을 하였다. 셋째, Denzin(1987)의 제안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일기, 메모, 공동체 활동 기록지, 신문 인터뷰 내용 등을 확보해 ‘자료출처의 다원화’를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동료집단과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분석해 합의점을 찾는 ‘분석자 다원화’를 시도했다. 넷째, Padgett(1998)의 제안에 따라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오류와 잘못된 이해를 정정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그들에게 직접 조언을 얻었다.

III. 결과 및 해석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132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의미단위는 연구자의 언어로 재구성해 77개의 중심의미로 정리하였다. 중심의미 중 중복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난 것들을 정리하여 17개의 드러난 주제로 재구성하였으며, 상호관련성을 바탕으로 검토해 총 5개의 본질적 주제로 도출하였다(표 2 참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상황적 구조기술과 일반적 구조기술로 분류하였다. 상

황적 구조기술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이 드러나도록 구성하였으며, 일반적 구조기술은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보편적 경험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1. 상황적 구조기술

쇠락한 고치집에서 나비되기

경제과 우정이라는 일석이조.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경제적인 소득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소득은 재 활용품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팔아 창출되는 수익이었으므로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 연구 참여자 1, 2, 5는 적은 돈이 우정을 쌓아갈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돈은 인간관계의 본질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에서는 신용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독거노인은 가난함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징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늘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당사자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 일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소액의 돈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벌었다는 것과 또 종자돈을 마련했다는 생각으로 경제적 무능력자라는 부정적 평가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돈과 우정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노인들에게 돈과 우정은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돈과 우정은 별개의 것도, 본질적으로 같은 것도 아니다.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였으므로 삭막한 아파트촌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사

표 2. 남성 독거노인의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본질적 주제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의미
외로운 고치 집에서 나비되기	경계와 우정이라는 일석이조	- 흥·허물없이 언제든 교류 할 수 있는 조합원 친구들 - 서로 위안 삼는 조합원들이 유일한 소통창구임
	뒷방 늙은이 탈출	- 단 1년을 살아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일하는 노인으로 살고 싶음 - 의미 없는 놀이보다는 운동 삼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은 일거양득임 - 어차피 죽을 몸 일하는 것이 낫다고 봄 - 노는 것보다는 낫기에 재활용품 수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음
	잃어버린 기쁨의 회복	- 함께 있음은 안정과 바람직한 변화의 기본임 - 자유롭고 흥취물 없는 남자목욕탕에 들어온 느낌 - 걱정할 일은 점차 줄어들고 웃을 일만 늘어남 -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방의 향수를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되살려냄 - 가족도 해줄 수 없는 따뜻한 정을 조합원들과 공유함
	소박한 희망으로 진입	- 함께 놀며 이야기하는 분위기에 이끌려 참여함 - 큰 기대 없이 친구 따라 강남가듯 참여함 - 놀다가라는 지나가는 말을 듣고 갔다가 얼떨결에 조합원이 됨
불안한 주체에서 희망의 주체로 재탄생	소통바람이 아아간 불안의 구름	- 마음속을 짝 채우는 고통과 불안이 서서히 빠져나옴 - 마음이 통하니 서로 위안이 될 수 있음 - 나이를 초월한 망년지교(忘年之交)임 - 사회 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음
	겸허함으로 하나 되기	-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겸손함을 배움 - 직책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 - 하고자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손의 역할 - 나이와 직책의 상하관계가 없어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함
	노년의 아집에서 수용으로	- 눈에 보이는 돈이 없어 중단했지만 적적함에 다시 참여함 - 빈 병 줍는 일이 하찮게 여겨져 다른 일을 찾았지만 몸이 받쳐주지 않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함 - 돈에 끌려왔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얻음 - 서로가 서로를 헐뜯기보다는 중재역할을 해주기에 못마땅한 사람, 보기 싫은 사람도 참아냄 - 비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한 운영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운영방법을 비판했지만 독단에 빠져있음을 깨달음

표 2. 남성 독거노인의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본질적 주제 (계속 1)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의미
가치 지향적 사회적 역할 확보	이타적 자긍심 부활	- 주저앉은 노인을 일으키는 손이 되고 싶어 조합을 꾸림 - 한 문중이라 자연스레 돕게 됨 - 이타적 공익 활동이라고 생각해 자연스레 반열에 참여함 - 전문적 봉사활동이라고 여기고 참여함 - 돈도 없고 몸도 약하지만 마음을 다해 도움을 주고 싶음
	새롭게 솟는 청춘의 힘	- 외양은 늙었지만 혈관 속 피가 다시 뜨거워짐 - 외부의 시선에 상관없이 자신을 젊은이로 여김(정초함) - 노인이라는 세상의 명칭과 달리 활력을 지니고 있음 - 나이가 들어 민첩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이고 우직하게는 할 수 있음
	시간의 주인되기	- 남들은 무시하지만 (주체적으로 긍정적 의미부여) 조합 활동에 스스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느낌 - 죽은 시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일 - 돈 보다는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기 위한 일을 함
	버려진 것에 생명 불어넣기	- 작은 돈으로 느끼는 큰 행복 - 쓸모없는 것들이 나에게 오면 돈이 됨 - 버려지면 쓰레기 수거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재화가 됨 - 적은 돈이지만 종자돈을 모아 더 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김 - 재활용품 수거는 나의 가치를 새롭게 바꾸는 것임 - 불품없는 자식을 삶의 훈장으로 여김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진입하여 희망의 새 길을 찾음
친밀한 공간의 점유	늙음의 상징 노인정 탈피	- 돈 문제로 갈등을 빚는 노인정을 떠나 싶음 - 노인정은 나이를 벼슬로 여기고 객관적 판단을 못하지만, 협동조합은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임 - 고향과 학연에 따라 나뉘고 반목하여 친목도모가 안됨 - 쥐꼬리 같은 노인정 권력을 위해 싸우는 모습에 년덜머리 남 - 번잡스러운 소속감보다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 더 나음 - 평생 엄격한 조직생활을 해왔기에 노인정 조직에 혐오감이 생김 - 노인정이라는 쓸데없는 집단보다 생산적인 조합활동이 좋음 - 나이가 의미 없는 노년이지만 한두 살 차이에도 위계를 따지고 드는 노인정이 싫음 - 노인이 노인을 폄하하는 부끄러운 현실 - 배려보다는 대접을 원하는 노인이 싫어짐

표 2. 남성 독거노인의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본질적 주제

(계속 2)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의미
친밀한 공간의 점유	남성들만의 공간 확보	- 경제·정치 담론을 나눌 사람이 없어 서운함 -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남자세계를 관계지향적인 여성이 기피함 - 보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 남녀가 어울리는 것이 불편함 - 남자들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남자모임이 편함 -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 빈병수거를 하며 협동조합이 발전함
	상호존중에 기초한 친밀감	- 친밀함과 구분해 경계를 지켜야 공동체가 지속됨 -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음 - 공동체는 차이 자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존재사슬 자각	근린올타리	- 조합원은 구성원이 아닌 어려움을 해쳐나가는 새로운 사회적 가족 - 협동조합은 위급 시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상연락망 - 올타리가 해체된 자신에게 올타리가 되어줌 - 공동체는 경제적 목적 보다는 서로 돕는 공동 지지체
	노인맞춤로 어려움 이겨내기	- 임대주택의 제도적 장벽에 부딪혔지만 의견을 일치하여 해결함 - 모순된 법적 제제를 받아 분노했지만 구성원들의 협력으로 위기를 넘김 - 경쟁상태에 있는 노인정이 협동조합을 해산시키고자 다각적 노력을 했지만 협력이라는 상호연대라는 힘에는 이기지 못함
	희생하여 공존의 길 모색	- 서로가 도와 나가는 움직이는 총체적 한 몸(지체형제) -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들어 힘이 됨 - 노인정에서 충족하지 못한 노년이 건전한 욕망을 협동조합에서 보상받음 - 낯선 임대아파트에 적응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모임이 형성됨 - 십시일반으로 모인 삶의 지혜로 서로 도우며 살아감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을 현실에서 확인함

람 냄새'를 맡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는 참여자 3의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냄새 없는 삭막한 아파트촌에서 사람냄새를 맡자고 모인거요. (중략) 이게 가정생활도 알고 과거도 서로 알고, 서로 개인이 개

인끼리 만나서 자기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살아온 게 다 다르니까. 그런 벽이 자꾸 만나니까 허물어져요. 단 100원 200원 이런 것들이 우리 들끼리 그런 식으로 마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참여자 3)

뒷방 늙은이 탈출. 세상 속 주인공에서 뒤로 밀려나 앓게 됨을 느끼며 자신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였던 연구 참여자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뒷방에서 나와 세상 속의 일원이 됨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뒷방 늙은이라고 의미 짓고 있었다. 뒷방 늙은이의 사회적 역할은 세상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협동조합이 일종의 계기가 되어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세상 속으로 나온 뒤에는 자신은 밀려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6, 8은 스스로 뒷방 늙은이라 칭하였으나, 자신들이 뒷방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순리대로 밀려나 앓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4, 8)은 사회의 주역에서 퇴역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좌절감과 허망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 활동에는 나이의 벽이 없으며 혼자 무엇을 해내는 과정이 아닌 함께 모여 서로 의지하여 돕는 과정을 거침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더 뒷방으로 물러남도, 늙은이라는 나이의 벽에 갇힘도 아닌 새로운 장(場)이 열림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장은 단 1년을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였으며 이는 참여자 2의 구술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협동조합은 상부상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상부상조의 개념이 많이 없어요. 이 협동조합이 지금은 별 볼일 없을

지도 몰라요. 그냥 할애비 늙은이들 모여 앉아서 시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원 20원 모은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래도 이걸 하면서 1년을 살아도 쓸 일이 있게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달라지는 점이고 이걸 잘 유지하고 싶은 바람이지.” (참여자 2)

잃어버린 기쁨의 회복. 그들이 경험한 삭막한 도심의 아파트 생활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회색빛 공기가 감도는 콘크리트 성에 갇힌 것과 같았다. 이러한 콘크리트 성 안에서는 온전한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협동조합 공동체 참여 후 그들은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된다. Maslow(1943)의 욕구단계 이론에서 밝혀짐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낀 후, 공공 활동을 통해 인정을 받고자 하였으며 더 이상 사회의 부담이 아닌 기여하는 노인으로 나아감으로써 자아실현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일과 여가는 분리되지 않았다. 일하는 것이 곧 여가이고, 여가가 일이 되는 것이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노동의 가치를 부활시킨 것이다. 현대는 노동과 여가는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동과 여가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았다. 이는 ‘노동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동과 여가가 분리된 생활을 했지만 공동체 활동에서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생산성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에 이윤에 함몰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동과 여가를 공유

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돈도 중요하지만, 노년기를 서로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 다른 차원의 노동과 여가의 공존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1은 이러한 갑갑한 생활에 한숨을 느꼈고,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자신의 집으로 또래의 남성들을 초대하였다. 그렇게 그곳은 ‘사랑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그간 잊히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해주는 활동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3, 7)은 한데 어울려 늙어간다는 것이 노년기의 재미라고 생각하였고,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인해 외로움과 불안감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의 회복은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 관계방식으로서의 공동체(Schrivver, 20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데 모여 서로가 어딘가에 속해있다는 상호인식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형성하였으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이 공동체 활동을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냥 이 시기에 서로 재미있게 늙어간다. 이것만으로도 좋지요. 돈도 중요한데 서로 재미있게 이 시기를 즐겁게 노년기를 보내는 거다... 생각하죠. 이것도 가치 있지요.” (참여자 2)

“여기 협동조합 사랑방은 특별 모임이잖아요. 모임이 약간 달라. (중략) 예전에

반상회라고 있었다고요. 이제는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삭막하고 쓸렁해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냄새가 나잖아요. 소식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참여자 3)

불안한 주체에서 희망의 주체로 재탄생

소박한 희망으로 진입.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처음부터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에 의미 있는 목적을 두거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 4는 가깝게 지내던 참여자 2의 권유로 합류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물론 호기심도 없었다. 참여자 5 역시 노인정에서 어울리던 중 몇몇이 모임을 한다는 말에 이끌려 사랑방에 끼어들게 되면서 조합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큰 기대로 없는 친목모임으로 오게 된 참여자들은 사랑방에 오게 된 순간부터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 분위기에 이끌려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모임에 오게 된 순간 역동적이고 활기찬 분위기에 이끌려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목표는 매우 유연했고 상황 가변적이었다. 참여자들은 의견 상 조합의 대표가 이끄는 대로 단순 추수라고 구술하기도 했으나, 이미 공동체 활동에 참여 자체가 목표가 되었다. 목표가 생긴 후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의 확장에 주력하였는데, 이 또한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적극적인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확장되고 점차 성장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속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늙어갈수록 친구가 좋다.’

는 표현의 실제로 볼 수 있으며, 더욱 근본적인 것은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목표로 삼은 것이 없었으니 함께 놀며 이야기하는 분위기에 취해 놀러왔다. 조합의 대표가 이끄는 대로, 다수가 하자는 대로 참여하면서 뭘 한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참여자 4, 6는 반복되는 모임을 통해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이 취지를 이해하였고 무엇보다 자유롭고 협력적인 분위기가 동기가 되었음을 구술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모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앞에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저 C씨가 불러. B씨 집에 사람들이 있다더라 같이 놀래. 해서 왔어요. 뭘 하는지를 모르니 기대랄 게 있어요? 왔는데 재미도 있고 뭐 가서 할 일도 없고 와서 놀러왔게 된 게 지금이에요” (참여자 4)

“이제 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거 누가 하라고 해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여럿이 하다보니까. 한사람이 (신문지)한 장가지고 오면 10명이면 10장이지. 100명이면 100장.. 여기에서 이제 의욕이 생기면서 취지가 참 괜찮다.. 이제 우리는 큰 돈 벌 시기가 아니지.. 뭔가 운동 겸 해서 다니고 거기다가 장부상에 백만원이 됐네.. 하면 우리가 앉아서 개인 소유가 아니래도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이런 그 저 계획의 목적에 동의하고 좋

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분위기면 올 만하겠다 했고” (참여자 8)

소통 바람이 앓아간 불안의 구름.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3, 4, 6)은 전쟁 경험, 군대 생활, 직장 생활 등 이 땅의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겪었던 사건들을 공유하며 동질감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한 소통은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 되었다. 남성들만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서로의 경험이 다소 과장되고 살이 덧붙여지더라도 ‘에헤이~’하고 웃으며 넘기고 그것을 재미로 여기기도 하였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통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으며, 이러한 친밀한 소통은 연구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짓누르고 있던 노년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참여자 5는 마치 바람이 구름을 몰고 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의 해소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전에 연구 참여자들은 분별심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노인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기에 경제상황은 비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방늙은이의 회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 끊임없이 자신을 특화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 ‘오십 보 백 보’인 상황에서 다른 노인들에 비해 자신은 자동차가 있거나, 연금을 조금 더 받는 다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아무것도 없는 노인들은 나이가 권위가 되었던 것이다. 나이가 벼슬이라는 말처럼 노인에게는 나이란 최후까지 의지할 수 있

는 버팀목이었는데, 이것들 역시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갔다. 분별심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분별심의 소거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환경적 특성은 지난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을 나눌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2는 “서로 뻥한 처지”에 우열을 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모임이 되었다.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혼자 남겨졌다는 불안과 싸워가던 이들이 서로의 말동무가 되어 주는 경험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일보일보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해가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서로가 싸워서 미운정도 들고, 오며가며 고운정도 들고 친구들이 그렇지. 그래야 서로 거부감을 느낄 것도 없이 서로에게 해로울 것도 없으니까. 이런 공동체는 잘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고, 같이 누가 상대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가 되는 모임의 재미라면 재미지.” (참여자 8)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들에게 말쑥을 가지고 힘을 주는거. 노인만이 노인의 마음을 알아요. 젊었을 때 잘 나갔나 못 나갔나 이제 와서 중요해요? 사는거야 다 뻥한데 따져봐야 의미가 없어. 서로가 마음을 너 그랬냐 나 그랬다 힘들었다 그랬겠다 이런 게 위로가 되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안심이 되잖아요” (참여자 2)

겸허함으로 하나 되기. 사회적 역할은 젊은 날의 연구 참여자들을 꽃 피우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며 자신을 살게 했던 다양한 역할을 잃게 되었고, 자신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과 자신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낼 뿐이었다. 다시 말해 노년기 진입 후 잃어버린 역할로 인해 지위가 없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지위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되지만, 많은 이들에게 지위는 소위 감투, 완장으로 인식·표현되기도 한다. 윤홍길(2011)의 소설 「완장」에서는 동네 건달이 저수지 관리인이 되면서 권력을 남용하며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소설 속 완장은 사회가 부여한 자리로 임시적인 권한을 상징하는 매개체로서 권력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완장을 찬 지위는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고 토끼 뿔이나 다름없는 허망한 권력욕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직책이나 지위를 책임감도 권력도 아닌 겸허함으로 받아들였다.

겸허함은 나와 너를 뛰어넘는 우리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하였다. Martin Buber(2001)의 Ich und Du(나와 너)에 따르면, 나와 남을 엄격히 구별 짓고 우열을 가르는 서열 사회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 활동이 일종의 교육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1, 5, 6, 7)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에서 각자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였지만, 직책은 아님을 강

조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역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직책은 ‘수직적 구조에서 주어지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업무’로 강제성을 띠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2, 8)은 협동조합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로 살아감은 서로가 협동조합 공동체 조합원이라는 일원으로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본요인이 되는 것이었다.

“복지관에 가면 오라면 오고, 밥 주면 먹고 하는 노인네들이 많은데 협동조합에서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니깐. 불을 지퍼주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잘 살아왔던 것을 바탕으로 힘이 될 것 같아요. (중략) 여기는 자존심도 다들 세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역에 가서 그런 거 주워 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참 쓸쓸함이 들고, 내가 예전에는 호령도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걸 줍고 있네? 하는 우울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하면 40원, 90원. 이런 생각으로 한다는 게 긍정적이죠. 의지(하는 곳) 없이 스스로 뭘 한다는 게.” (참여자 1)

노년의 아집에서 수용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타인이 한 공간 안에 모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협동조합 공동체라는 타이틀과 소액이지만 수익의 창출이라는 목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대를 하게 하였다. 이에 일부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4, 8)

은 당장 손안에 쥐어지는 소득이 없자 공동체 활동 참여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3, 6)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활동의 내용이 하찮다고 여겨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협동조합 공동체 탈퇴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자 4는 자신을 찾아와 중재를 시도하는 조합원들을 보면서 ‘다 늙은 마당’에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구술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늙어간다는 것이 지혜와 경륜이 쌓이는 한편, 고집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 공동체의 탈퇴와 재참여를 통해 자신의 아집을 직면했고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자신의 그릇된 아집을 마주 보게 되면서 스스로 태도를 반성하며 자기성찰과 통찰이 이루어진 경험은 참여자 2와 4의 구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거고. 나중에 실패를 하게 되거나 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 탓하는 게 적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내 탓인가 싶어서 우울해 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기대했던 돈이 생기질 않으면 나오기 싫은 건 사실이라고요. 돈이 들어오면 갈등이 생기죠. 근데 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수입이 목적이 아니니까. 200만원이 됐으니깐 단독 개인 돈이 아니래도 야.. 이거 대단하네.. 우리도 할 수 있네.. 생각이 바뀌

는 거지. 함께 모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네..” (참여자 2)

“내가 부산에 피난을 가서도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00대학교 2회 졸업생이야. (중략) 사업도 크게 했고 결혼도 좋은 집안이란 했어. 이혼을 해서도 아들들 잘 났고.. (중략) 여기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서 할 이야기가 많고 비판도 하고 나가겠다 했지. 그런데 나만큼이나, 나보다도 잘 난 사람들이 숨어서 하고 있더라고. 내가 이 동네선 제일 잘 난 놈이겠거니 했다고. 아..그러면 내가 고문이 되어서 도움을 주겠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나는 기고만장한 놈이었구나.. (중략) 소속감이랄지 소외감이랄지 그런 시대 자체가 없다 상관없다 했는데. 세상에 끼지 못하는 놈은 나였구나.” (참여자 4)

가치지향적 사회적 역할 확보

이타적 자긍심 부활.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인들이었다. 따라서 사회는 물론 참여자들 자신도 사회의 배려와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 참여자 7의 표현처럼 사회에 민폐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아만 쉼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아직도 잔존능력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을 통해 근육이 움직이고 혈관이 움틀 때 마다 자신에게 힘이 남아있음을 느낀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썩어도 준치’라는 우리의 속담을 되새겼다. 따라서 이러한 자각은 자신들이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마땅히 사회에 베풀어야 한다는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타인들의 가난함과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역시 동일하다는 또 다른 연대의식을 생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강요된 동일성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자각하면서 생성된 자연스러운 동일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은 개인이 가진 결함이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타성이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3, 5에 따르면 이러한 이타적 호혜는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실제로는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자신과의 동일시가 존재했다. 즉, 타자의 관점으로 자신을 비취봄으로써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 평가는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였고 이로써 협력적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외부의 권유가 아닌 자신들이 찾아낸 활동의 동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내적 동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 1, 3의 구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기는 1720세대가 모여 살아요. 30년 동안은 뭐 할 거냐 이거야. 30년은 다 같이 살아야해. 그렇다면 자꾸 주저앉으려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죽을 때까지 힘

을 줘야지. 근데 정말로 우리 노인.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낸다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못주는 용기를 줘야 돼요. 봐요? 그런데 나도 누가 보면 용기가 필요한 노인이잖아요.” (참여자 1)

“같이 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통한다. 이게 좋아요. 대단한 뭐 자본을 투자해서 한다? 그건 말이 안돼요. 남들이 보면 웃길 일이어도 그게 우리 활동의 목표가 된 거예요. 특활모임이 된 것인데. 보잘 것 없는 노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 봉사가 된다는 것이 딱 하나 큰 목표예요.” (참여자 3)

새롭게 솟는 청춘의 힘.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1, 2, 4, 8)은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해내고 있다고 느낌으로써 세상의 시선 속 노인이 아닌 청춘을 지닌 존재로 재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힘은 독거노인, 자녀가 있는 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공통된 경험이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자녀나 손자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되어있었다. 연구 참여자인 남성 독거노인들은 그동안 주는 재미가 아닌 받는 재미로만 살아왔다고 느꼈고 청춘의 힘을 회복하여 주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청춘의 힘이 있기에 늙어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이러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신체적·정신적인 힘이 생기면서 늙어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난한 삶을 살아내기에만 급급했던 일상을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생활로 재구성하게 되면서 내면에 간직해온 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깨닫는 것이었고 늙음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었다. 참여자 2, 3, 5의 구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경험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은 날 때부터 혼자야. 스스로가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혼자 산다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 남이 뭐란다고 광광대지 말고, 보여줘야지. 깨끗하게 산다. 늙은 홀애비라도 난 젊다. 왜? 이렇게 부끄러울 것 없이 산다.” (참여자 5)

“애들한테 신세안지고 용돈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착 처져있지 않고 힘이 나니까.” (참여자 3)

“우리는 이제 얼마나 살지 몰라요.. 곧 팔순이에요.. 그래도 팔팔해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세상은 노친네라고 하지요 우리는 기회를 주면 작은.. 그런 일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봐요.” (참여자 2)

시간의 주인 되기.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잉여시간을 보람 있는 시간으로 탈바

꿈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람은 살아감에 있어 의욕을 불러일으켰으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1, 2, 5, 7, 8)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오늘도 잘 살았다'라는 만족감을 가져다주었음을 표현하였다. 보람과 만족감은 과거의 화석으로 살아가던 연구 참여자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타자가 되었을 때에는 하루하루가 죽음으로 향하는 시간으로만 경험되었다. 늙어서 희망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것. 시간이 주인이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날로 바뀌어갔다. 시간의 자기성을 찾아감으로서 삶의 의의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하는 것에 아주 만족하죠.. 보람이 있지요. 내 나이에 누가 어디 가서 받아줍니까? 여기 와서 100원 200원 모으면서도 다 같이 발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다 같이 몸은 늙어가도 정신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참여자 8)

“자신감이 내 생활을 변화시켰죠. 사람이 미친다고 하나.. 몰두..몰입.. 만약에 이 00마을 와서 협동조합이란 것을 안했다면.. 그냥 노인네가 되었다면 머리 자체가 퇴화되었을 것 같아요. 무료해지고, 처음에 이 동네 와서 참 무료해지더라도, 공원을 매일 돈다는 것도 지겨워요.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겨워요. 어쨌든 이제 일이 있잖아요. 사는 게 의미가 생겼

다는 말이에요.” (참여자 2)

버려진 것에 생명 불어넣기. 연구 참여자들은 재활용품 수집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변모시켰다. 연구 참여자 2, 5, 7은 버려져 있을 때는 쓰레기였던 것이 '자신의 손'을 통해 수거되어 돈이라는 수익을 창출하게 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제 역할을 다 하고 버려진 쓰레기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이 자신을 주위 올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즉, 그들이 주위 올리고 재탄생한 것은 재활용품이 아닌 자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재발견 활동이 그들은 협동조합 공동체로 이끌었으며 지속적 참여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에 있어 이러한 자각은 그들을 소생시켰다. 사실, 자신이 버려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현실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을 노래하는 존재로 재탄생시킨 것은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자신을 싣고 함께 나아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참여자 2가 밝힌 바와 같이 과거의 빛나는 훈장은 현재에 무용한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물체에 불과한 자석은 현실에서 쓸모 있는 훈장이 되었다. 자석은 이들이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기 위해 허리띠에 차고 다니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슬을 통해 희망의 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노익장을 발견할 수 있다. 참여자 2의 구슬처럼 자기를 넘마주의로 쓰레기와 동일시했다. 따라서 그는 자석을 삶의 훈장으로 삼는 질적인 변이를 하였다.

“맥주병도 저게 엄청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증말로 이야 이게 모이니까 뭐가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조그마한 걸 가지고 하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중략) 고난의 스토리가 있는데, 여자들이야 뭘 만들어서도 판다는데 우리는 단순히 하는 거지. 각자 삶의 보람이 모여서 이게 얼마나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중략) 특히 우리가 뭘 대단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버린 거. 그 버린 걸 미화로, 또 단 몇 백 원이라도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 (참여자 1)

“전부 허리에 자석을 달고 다녀요. 켄이 저런 게 돈이 되는가하고 다 주워왔더니 철 켄은 돈이 안 돼. 그래서 자석을 달고 다녀서 대박요. 훈장처럼 자석을 딱 매달고 다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은 진짜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자석이 훈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현대판 넝마주의가 된 거죠. 솔직히 실제 내가 넝마가 안 되더라고요. 자존심이 있으니 누가 볼까봐.. 여러모로 깨닫게 된 바가 있고 하니, 이제는 습관 되서 부끄러움도 없고 내가 당당하니 괜찮아졌어요. 세상풍파 다 겪은 노인이 가진 힘이 이런 거예요.” (참여자 2)

친밀한 공간의 점유

늠음의 상징 노인정 탈피.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정(老人亭) 또는 경로당(敬老堂)으로 불리는 노인 모임시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곳은 노인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공손함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8은 노인정이 노인을 가두어두는 ‘가두리 양식장’과 같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따질 가치도 없는 50여 년 전 학위 증명서를 확인받는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가두리 양식장에도 진입장벽은 있었다. 연구 참여자 8의 경우, 자신이 대졸자임을 내세우자 학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소동이 있었고 확인이 된 뒤에야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의 확인이자 일종의 서열 확인 검증절차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노인정(경로당)은 겉으로 보기에 잔잔한 수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한 암투가 존재하는 곳이었다. 노인정은 내부적으로는 중심 세력이 존재하여 ‘쥐꼬리만 한’ 지원금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거나, 조금이라도 튀면 따돌림을 당하는 조직체였기 때문이다. 이 조직체 탈출을 위한 모의를 통해 형성된 협동조합 공동체는 민주적 질서를 잃어버린 채 소수의 권력과 횡포에 휘둘리는 조직체 거부 작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2는 노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장된 자기 현시욕에 신물이 났음을 구술하기도 하였다. 그는 확인하기 어려운 과거의 무용담에서 시작해 자식 자랑으로 이어지는 반복된 이야기거리는 더 듣기 힘든 것이며, 잘난 것도 없는 현실의 무의미한 자기 자랑 경쟁은 싸움으로 연결되기도 했음을 밝혔다. 노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현재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무의식적 동기의 발현에 따라 과장된 자기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정(경로당)은 참여자들에게 있어 늙음의 상징이 되는 곳이었으며 그 공간에 대한 격렬한 거부는 다음의 구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000가(본인) 대학을 안 나왔 다. 거짓말을 하는 거다. 학력위조다.. 내 그 다음날 그걸 카피를 했어요.. 아주 기 분이 안 좋죠. 이 노인 가두리 양식장에 엉겨붙어있으니 서로끼리 양보가 없고 악평을 해가며 진실을 보지도 못하면서 진실을 찾는다고 이 나이에 대학 졸업장 까지들.. 노인정에 대학 졸업장 확인이 무슨 말입니까. 꼴을 못 본다는 거죠.” (참여자 8)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직 생활이고 얹매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모 였다가도 주춤주춤해요. 노인정에 모여 있어도 유대가 없고 서로가 씹어요. (중 략) 여기는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지 다른 주주가 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권리가 많아지는데 여기는 조합장도 1표, 이사도 1표고.. 조합원도 1표니까 공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이거하자!! 해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의심이 없지요.” (참여자 1)

“요즘 노인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도 화투하고, 쌤질도 하고 그렇잖아요. 노인정 문화라는 게 그냥 가서 수다나

떨고 앉아있는 게 많아요. 현실이 그래.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많아보니까 잘 안 모여요. 다들 모여서 자식자랑을 그렇게 해서 아주 듣기가 싫어서 가기가 싫어진 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만나면 내 사는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현실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내 자식은 잘났고 어찌고 하니까 그러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안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나 도 노인정을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어요. 이름부터가 노인정이니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 것 같고. 나도 희망 이 없지만, 다들 희망이 없더라고.” (참여자 2)

남성들만의 공간 확보. 그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에서 자신들을 여성과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였다. 남성들을 모이게 한 것은 자신들은 여성과 다른 존재라고 인식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 5와 8은 자신들이 살아온 환경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서로가 한 공간에 모여 있더라도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없음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은 한 문화권에 있었지만, 가부장적 사회에서 후 천적 학습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와 성 정체 성을 형성함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2는 협동조합 공동체를 구성한 대표자 가 남성이었고 독거노인이었으므로 그와 비슷 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대표자가 자신의 집을 내어줌으로 인해 시간의 제약 없

이 자유롭게 오가는 자율성과 남성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상호연관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남성들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과 분리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성적 고유성을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여성들만의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그들만의 독립된 영역이 필요하듯 남성들 역시 여성과의 차별수준이 아닌 자기의 고유성 차원에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노인정은 서로 서먹서먹한 느낌이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남자나 여자가 섞일 일도 없고 할 말도 없다는 거지. 뭘 같이 해야 말이라도 섞지. 무슨 핑계가 있어야 섞여지지. 우리는 젊고 일 할 때도 교류가 전혀 없었어. 평생을 서로 각자 해온 일들이 다른데 늙었다고 모아놓으면 해결이 되나.. 아주 어색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남자들끼리 모이게 된 거고.” (참여자 3)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젊었을 때도 남자들의 그 의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았던 거예요. 남자들끼리 사랑방을 만들고.. 그 젊을 때 가졌던 의욕을 잃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중략) 여기는 통행금지 없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해요.” (참여자 2)

상호존중에 기초한 친밀감. 상호존중은 연

구 참여자들이 노인정(경로당)에서 가장 부족하게 느낀 부분이었다. 상호존중은 서로 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되 친밀성을 바탕에 두어야 하는 것이었고, 지척에 모여 서로를 위하되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4는 늙어감은 예견되어있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기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재미있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모른척으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인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사모임으로 전락해버려 활동의 본질을 잃기 쉽고 그토록 거부해왔던 노인정 활동의 연속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친밀감은 그 깊이가 얇고 연속적 유지가 어려워 공동체 활동의 연계가 힘들기 때문에, 친밀감은 상호존중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숙한 친밀감이야말로 세대와 성별을 초월한 사회적 관계 기술이지만,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경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황혼으로 표현하였다. 황혼은 밤의 전조인 동시에 가장 화려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표현한 황혼에는 이중적인 뜻이 담겨져 있었다. 서로 고립된 상태였을 때는 어둠의 전조로 해석되었지만, 서로 친밀감이 형성되었을 때는 바로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로 기억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그냥 서로 재미있게 늙어간다. 이것만으로도 좋지. 돈도 중요한데 재미있게 이 시기를 즐겁게.. 이왕이면 서로 존중은 해도 오지랖으로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너

다 인정하고 그렇게 노년기를 보내는 거다... 생각하는 거여. 이것도 가치 있지.” (참여자 6)

“우리는 이제 황혼이에요. 해가지고 있다고 이제 늙었는데 뭐가 어쨌네 어디를 모여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옳다 그르다 그런 것을 따지고 들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서로 황혼이라고 이해하고 서로가 애초부터 다르다 그걸 알면 분란이 있었겠어요? 공동체가 그래요 소속감 어찌구.. 그건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해하면 그렇게 서로에게 소속이 되는 거죠. 막 옥여넣어서 한 몸이 되자는 게 아니잖아요.” (참여자 4)

존재사슬 자각

근린울타리. 남성 독거노인인 연구 참여자들은 한 울타리 안에 소속됨이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던 연구 참여자들은 속해있음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 의지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 2, 3, 5는 주기적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으로 서로 균형적 관계를 이룸으로써 서로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거나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우려한 것들은 불시에 찾아오는 변고나 죽음 같은 목숨에 대한 집착보다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으로 볼 수 있다. 신문에 간간히 보도되는 고독사를 볼 때 마다 독거노인들은 자신이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

려움에 몸서리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종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자기미학은 누군가가 자신을 돌보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위기 시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자 믿음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협동조합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참여자 5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협동조합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의 수준을 뛰어넘은 ‘사회적 가족’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돈에 목적이 아니고 앉아서 화합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저런 소리 해가면서. 이런 재미로 와서 우리가 하는 거지.” (참여자 3)

“이 조합은 가족이에요. 자연스럽게 도움이 가지요. 이게 뭐냐면 나도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잘 되면 가족만 되요? 그 이상이지. 그게 안심이 돼요.” (참여자 5)

노인 밋줄로 어려움 이겨내기. 연구 참여자들이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장벽은 내부의 갈등이 아닌 외부의 견제였다. 지역사회 모든 노인들을 통제하고 싶어 했던 노인정 대표는 협동조합 대표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협동조합 공동체 조합원들이 모임을 통해 서로 부항뜨기를 해주고 고마운 마음에 보답의 의미로 제공한 1,000~2,000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합원들이 집단으

로 경찰서에 방문하고 탄원을 하여 구두경고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대표가 노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돈을 뜯어낸다는 낭설이 돌았고 외부의 이간질로 인해 탈퇴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생겨 해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4와 6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토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서로를 중재하여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협동조합 공동체의 고비는 노인정 대표의 견제만이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관리규약 중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면 “전용 부분을 주거의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다. 이에 근거하여 관리사무소에서는 해산을 종용하였다. 협동조합 공동체 조합원들은 긴급 임시총회를 하였고 새로운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공간의 이전이 이루는 과정을 거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였다. 이렇듯 서로가 팔짱으로 낀 채로 엮여 형성한 단단한 노인 밋줄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급자는 재산이 없어야 해요. 저도 아파트가 있지만, 그게 다 아들들 앞으로 해줬어요. 나는 없는 거야. 협동조합 출자금이 은행에 있으면 그게 재산이 되니까 문제가 돼요. 이것을 p2p로 돌려버리면, 그게 재산이 안돼요. 추적이 안 돼요. 눈에 안보이니까. 이런 것들도 자기 경력들이 있으니 서로 돌파구를 찾아내는 거예요.” (참여자 1)

“여기는 해산위기가 크게 있었어요. 대

표가 경찰서도 다녀오고, 노인정에서 관리실에 끈지른거예요. 저기서 F씨가 부항을 떠준다더라, 노인들보고 쓰레기를 주워오라고 착취한다, 돈이 오고간다..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어요. 부항 떠주는 것도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고맙다고 주는 천 원도 받으면 안 된다고. 근데다 여기는 잠자고 어떤 일종의 그냥 생활을 하는 곳이지 어떤 작업도 불가하다. 관리소에서 와서 이 책자를 내밀어요. 이걸 여기 규칙이 그러니 우리가 따질 수도 없고 누구 탓도 못하는 거예요. 그 난리 중에 탈퇴도 여럿 했어요. 이걸 해산이다 그런데 우리가 쌓은 정이란 게 있는데 그게 되냐. 어떻게든 유지하자 해서 늙은이들이 모여 앉아서 머리를 쓴 거예요.” (참여자 5)

희생하여 공존의 길 모색. 한국의 문화는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해왔으며,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모으고자 두레, 향약, 계, 품앗이 등을 행해왔다. 이는 단순히 농사뿐 아니라 어려울 때 돕고 살아가야 한다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상호결합조직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참여자 1, 3, 8)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을 되짚었으며 이를 두고 ‘세상사는 맛’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상호부조는 물질이나 도구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참여자 3는 배우자 사별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받은 위로를 떠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 5는 불편한 몸을 대신해 구성원들의 머리가 되어줌에 관해 이야기 하였

고, 참여자 4는 참여자 7을 도와주기 위해 재 활용품 수집을 조금 더 해오기도 했다고 하는 등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유기적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가 힘을 합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혼자서 버텨오던 삶의 무게 역시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으며 개인의 인식이 변화됨으로 인해 낮은 환경에 적응함은 물론, 공동체 조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통사회의 이상형으로 생각해온 상호부조를 현실에서 다시 재현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농사지를 때 두레, 계.. 이런 게 협동하는 우리랑 그게 비슷한 거예요. 협동조합이 재래식 협동조합이 있고 이것은 신식 협동조합이에요. 재래식은.. 시골에서 대동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 대동계 한 마을 자체들이 계원들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같이 해서 이겨내는 민족성을 가졌어요. 또 서로 힘드니까 농악하고 해서 응원하고 그 많은 일을 해냈듯이. 세상이 이제 아파트의 핵가족화.. 이게 단절되어 있다고요.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한 번도 못 만나요.. 여기서는 서로 이렇게 낯설은 곳에서 정 붙이게 되는 거고요” (참여자 1)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역사가 깊고 넓어요. 우리는 환갑잔치를 가도 돈이 없으니 감자있는 사람은 감자 가지고 오고, 고구마 있는 사람은 고구마

갖고 오고. 그렇게 큰 잔치를 해낸거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각자의 어려움을 알게 되죠. 우리는 야쿠르트 한 줄이라도 생기면 와서 나누고. 이게 세상사는 맛이고.” (참여자 3)

2. 일반적 구조 진술

일반적 구조 진술은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경험에 관한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드러내는 것으로, 관계들의 연결을 나타낸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에 따른 보편적 구조를 그림 1에 도식으로 제시하였으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화적 글쓰기를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혼자 살아가면서 겪었던 역할 상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극복하는 인술(人術) 전략과 대표자가 한 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혼자됨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고치 집에 틀어박혀 TV를 유일한 낙으로 삼으며 기쁨도 웃음도 잃어버렸다. 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활동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즐거움을 되찾고 뒷방 늙은이의 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협동조합 공동체에 참여하기 전의 삶은 쇠락한 고치집 속 애벌레의 삶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애벌레의 삶이란 그들이 사는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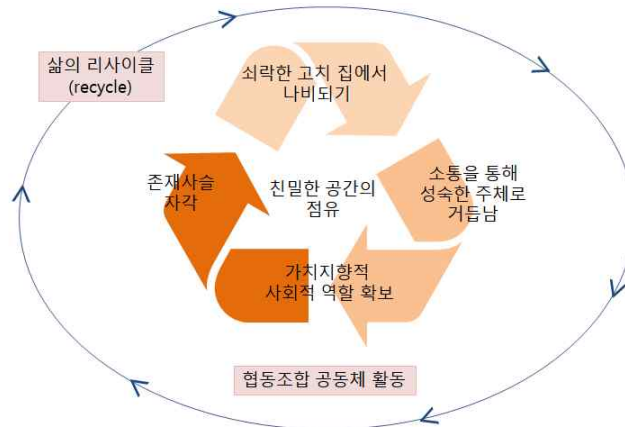


그림 1. 남성 독거노인의 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본질의 일반적 구조

로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갇혀진 존재였다. 그들이 뒷방 늙은이의 설움을 떨쳐버릴 길은 자기만의 고치집에 틀어박혀서 TV로 위로받는 것뿐이었다. 그랬던 그들이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애벌레에서 나비로 전환하는 경험을 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것은 질적인 전이를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고치집에서는 경제적 궁핍과 건강 염려, 안전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안한 주체로 살아왔다. 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건져낼 수 없었다. 그저 오늘 하루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공동체라는 결사체에서 희망을 발견한 뒤,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에 유입되는 계기도 서로 달랐다. 그렇다 보니 전체를 기획하고 공동체 구축을 구상하는 책임자와 조력자,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 주변부를 맴도는 방관자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특히 방관자의 경우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얼

떨결에 덩달아 오게 되었다. 그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그저 웃고 즐기는 모임을 하는 것 자체였으므로 활동을 통한 바람 역시 매우 소박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 마음 통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안에서는 나이도 과거의 직책도 중요하지 않았다. 의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 조용히 밀어주었고, 의욕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일으켜 세워주었을 뿐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점차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겸손함은 하찮게 여겨지는 공동체의 재활용품 수집 활동이 사람을 얻는 활동임을 인식함으로써 더욱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위하는 태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는 공자의 논어 ‘위정편(爲政篇)’(최영갑, 2009)에 이르길, “예순 살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함과 같이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노년의 성숙한 주체로 거듭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소통을 바탕으로 한 관계 맺기가 이 공동체 활동의 전부가 아니었다. 협동조합이기에 공동체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활용 수집을 통한 수익창출이었다. 30년을 넘게 해오며 익숙해진 그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제 역할에서 물러나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거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것이었고 몸으로 때워야만 하는 낯선 활동뿐이었다.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었다. 연구 참여자가 사는 지역사회는 신도시에 속해있는 곳이었기에 비교적 깨끗했으며 재활용수거 공간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는 근처에 위치한 공원이었는데, 그곳 역시 환경 정비사업으로 00시 노인들의 소일거리 장소였다. 그러므로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빠르게 움직여 재활용품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다. 곳곳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쟁구도는 노인들의 증가된 물질적 욕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질적 욕망 못지않게 내재되어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자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경제주체(經濟主體)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욕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결합이 됨으로써 경제적 목표보다는 사회적 역할을 갖춰가는 쪽으로 두드러지게 발전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잠이 없어지는 것도 이 활동에서는 긍정적인 것이었다. 새벽녘에 공원으로 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그것이 모두 수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남들 보기에는 볼품없는 몸짓이었으나, 그들에게는 활력소가

되었으며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한다는 슬로건(slogan)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부심과 보람을 가졌다. 과거의 공로로 받은 훈장이 연금으로 보상된다면, 현재의 자석 훈장은 캔과 알루미늄을 분간하게 하였고 이것은 공공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공유의 공간을 가졌으므로 가능한 것이었다. 이 공간은 대표인 참여자 1의 집, 그중에서도 가장 넓고 해가 잘 비치는 거실이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그곳에 모여앉아 각자 챙겨온 것의 무게를 달거나 개수를 세고, 신문지를 묶고, 캔을 분류하고, 병을 씻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물상에서 와서 그것들을 싣고 갔으며 개인의 역량에 따라 수집된 대로 비용을 나누어 출자금으로 입금하였다. 친밀한 공간을 함께 점유하면서 누군가는 사회 담론을 나누었으며, 누군가는 남자이기에 공감될 수 있는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갔다. 함께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떠돌던 생활 속에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어울림의 의미를 깨달아갔다. 사생활과 같은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타인의 불편함을 헤아리는 인격적 기술을 획득하였으며 기다림과 같은 숙려의 기술을 익힘으로써 어울림의 기술을 완성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타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찰적 도구로서의 거울(looking glass self)'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도 했다. 또한, 그들만의 공간은 연구 참여자들이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 즉, '사랑방'의 역할을 하였다. 사랑방은 과거 우리 전통사회에서 개인의 독점 공간이지만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공

간이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은행, 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방문했을 때 인스턴트커피를 몇 개씩 주머니에 넣어와 함께 나누어 마셨다. 인스턴트커피는 승냥을 대신하는 또 다른 정의 소통 매개체로, 목을 축이는 물질이자 그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치유(healing)의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서로의 존재는 가까이(近隣, neighbor)에 있는 울타리로 작용하게 되었다. 울타리는 시련을 통해 더욱 튼튼해졌다. 시련은 법을 들고 찾아온 외부자가 물고 온 것이었다. 법 앞에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해산일은 다가왔고, 아쉬움과 분노로 조합원들은 발을 굴렀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 머리를 맞댄 결과 수거한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찾게 되었고 이전의 공간은 저장의 기능은 잃었지만 ‘사랑방’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찾아낸 그들만의 대항 방식은 노인정에서 찾지 못한 민주적이고 건강한 대치방안으로 서로에게 인식되어 또 다른 성취감을 가져다주었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외로운 외줄 타기를 멈추고 손잡고 걸어가는 기쁨을 획득하였으며 동시에 역할을 되찾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기만의 자리를 찾게 된다. 더불어 과거의 시간에서 뛰어나와 살아있는 현재를 살게 되면서 함께 늙어가는 재미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개인의 참여 목적과 함께 모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합의 공동체’로서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은 호혜를 바탕으로 고난의 바다(苦海)를 함께 건너

가고자 하는 노익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성 독거노인들의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체에서 활동 중인 남성 독거노인 8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8인의 연구 참여자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세상과 단절된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였으며, 소통을 통해 성숙한 주체로 거듭났다. 이는 타인과 함께 공동의 활동을 함과 동시에 가치 지향적 사회적 역할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가능 한 것은 친밀한 공간을 함께 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과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독거노인으로서 살아가는 고독한 시간을 협동조합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고 응원 받았으며, 이는 서로에게서 발견하는 자기가능성과 가치 있게 삶을 마무리 하는 의지가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정적인 남성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의 한계와 선행연구에서 밝힌 남성 독거노인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극복방안 제안에 그치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실제의 활동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본질을 밝힌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몇 가지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존재 확인에 관한 논의이다. 남성 독거노인에게 있어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은 자신과 타인, 환경과 소통을 하는 세상 속 무대가 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노년기에 도달한 많은 노인들은 과거의 시간에만 젖어들기 쉽다(김귀분 등, 2001; 김귀분, 윤지현, 석소현, 2006; 김소진, 2015; 진영선, 김영경, 2011; 최외선, 2007). 특히 남성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회적 역할, 가정 내 역할, 남성으로서의 성 역할 등이 변화하거나 쇠락해져가면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기 쉽고, 자기 존재감 또한 거부되는 상황에 처함을 경험하게 된다(이진숙, 최원석, 2014; Clarke & Lefkovich 201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성 독거노인들이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동체라는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현재의 적응을 위한 현실적 문제해결 도모를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협동조합 공동체가 잃어버린 삶의 역할 및 자신을 되찾게 하는 자유를 향한 갈망임을 밝히기도 하였다(강민수b, 2016). 노년기의 협동조합 공동체 활동은 친목도모를 뛰어넘어 타인과 다른 나, 타인과 같은 나를 배우는 곳이자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는 장이 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그들은 사회 내에서의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그 욕구는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존재이자 지역사회 내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드러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삶의 목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통합으로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치 있게 늙어가는 노년에 관한 논의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목표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이 이루어야 할 과업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노년의 과업을 자기통합(Erikson, 1959), 내면세계의 적응을 통한 개성화의 완성(Jung, 1974)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과업중심의 설명은 노인이 도달해야 하는 개념적 표준을 제시하는데 그친다. 통합의 개념은 획일적인 개념화가 어려운 추상적 개념으로 관념상으로 이해할 뿐이며 이론의 구체적 적용방법에 관한 제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몇몇 연구자들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하며 현실세계로의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Johnson & Mutchler, 2013; Morrow-Howell & Freedman, 2006). 현실세계의 통합은 나, 가족, 이웃,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목표로 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 관점에서 한국의 노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책임 있는 성원으로 활약해왔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차원의 통합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므로 한국적 관점에서의 '가치 있는 삶으로서의 노화'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 정책적 차원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노인중심의 지역사회기반 협동조합 마련에 관한 논의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공헌 및 경제적 소수자들의 연대와 자립을 주목적으로 형성되었다(김현대, 하종란, 차형석, 2016).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고독하게 늙어가는 이웃인 노인을 위한 협동

조합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 사업은 주로 일자리 창출(정규형, 최희정, 2016)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한국 협동조합의 메카’로 불리는 강원도 원주의 노인생활협동조합을 예로 들 수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과 문화적 복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인 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그 예로 미국 노인주택협동조합재단, 일본 니가타현의 사사에 아이(ささえ愛) 협동조합, 캐나다 퀘벡의 라 궈일(L'Accueil) 노인주택 협동조합, 덴마크 헬싱외르의 햄릿(HAMLET) 노인문화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박주희, 2012). 노인의 지역사회기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재가복지사업의 지역단위 확장을 시도함과 동시에 노인이 자신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여김으로써 주민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희경, 2016; Tyvimaa, 2011).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 AIP)’를 현실화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가치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기반 협동조합 마련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노인 협동조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협동조합 운동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자본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연대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관리·운영하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활성화에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며, 중기 또는 성장기에 이르면 조합원들의 주체적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택시협동조합, 의료생협, 생활협동조합은 물론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태동과 발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은 아직까지 저변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해도, 부족한 정보로 인해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은 노인들을 다시 수동적 존재로 끌어내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쉽다.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법률이나 제도를 잘 못 이해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위한 특화된 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교육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 노인협동조합 운동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지원조직을 통한 협동조합의 개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은 고물상이라는 판로를 통해 재활용품 수거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남성 노인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성 노인들과 달리 식품생산과 같은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내비쳤다. 재활용품 수거야말로 재료구입과 소비처 연계가 필요 없는 단순 업무에 그치므로 남성 노

인이 하기에 최적화 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가가치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노인 협동조합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서비스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원조직을 통한 아파트 내 노인택배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임선영, 2018).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이 불가능한 택배 차량을 대신하여 지역 노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여 ‘실버택배’를 운영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긍정적 대처방안이 단순히 지역사회 지원조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 사회의 생명 공동체, 살림 공동체로 협동조합 공동체로 확장시켜 간다면 새로운 지역 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지원조직을 통해 지역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상생할 수 있는 협동조합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수a (2016). 협동조합 연구현황과 향후과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민수b (2016). 역할을 잃은 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여정. 협동조합네트워크, 73, 243-244.
- 고호태 (2012).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연구. 노인복지연구, 58, 61-87.
- 김귀분, 윤지현, 석소현 (2006). 개인회상요법이 노인의 우울, 사기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6(5), 813-820.
- 김귀분, 이경호, 최양자, 전은희, 홍영혜, 이은자, 김인숙, 김미영, 강경숙, 석소현 (2001). 한국노인의 회상에 대한 문화기술지. 노인간호학회지, 3(2), 169-185.
- 김서현, 조희선 (2017). 남성 독거노인의 공동체 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9(4), 53-93.
- 김소진 (2015). 노인의 여가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복지사회, 2(1), 19-56.
- 김영란 (2013). 노인 1인가구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제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2014). 노인 1인가구 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제안-노인돌봄협동조합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32, 21-32.
- 김영천 (2013). 질적연구 방법론 III-Writing(2판).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택 (2017). 노인일자리 사업수행을 위한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인식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2016). ‘지역 공동체 내에서 나이 들어가기’관점에서 살펴 본 농촌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1(1), 251-273.
- 김진복 (1993). 믿음의 공동체-분도 노인 마을: 서럽지 않은 인생의 황혼길. 경향잡지, 85(4), 6-12.
- 김현대, 하종란, 차형성 (2016). 협동조합 차 좋다. 서울: 푸른지식.
- 김현숙, 황혜원 (2018).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노년초월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5(1),

- 43-60.
- 김형숙, 전경자, 김윤미 (2013).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3(2), 349-363.
- 김희경 (2016). 노년의 장소와 장소상실. *비교문화연구*, 22(2), 259-289.
- 민윤경 (2017).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역량이 협력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봉희 (2016).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생협평론*, 25, 56-75.
- 박주희 (2012). [앗! 이것도 협동조합] 노인협동조합. *협동조합네트워크*, 59, 70-75.
- 박현식 (2012).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58, 281-302.
- 변정원 (2009). 지역사회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노인복지 기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재은, 장은진 (2016). 여성독거노인과 남성독거노인의 관계자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1(2), 321-349.
- 손정남 (2012).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1(2), 118-126.
- 신명호, 이아름 (2013). 원주 지역 협동조합의 생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문화연구*, 36(4), 31-58.
- 유은주, 김미영, 이진정 (2013). 농촌 공동생활가정 거주 노인의 공동생활체 경험 연구. *노인복지연구*, 62, 151-172.
- 윤홍길 (2011). *완장*. 서울: 현대문학.
- 이석민, 원시연 (2012).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적평가. *한국행정학보*, 46(4), 207-232.
- 이양지 (2016). 노인일자리사업 수행단체로서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원주시 노인생활협동조합과 시니어클럽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2016).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독거노인의 세대교류를 통한 공동체의식 변화연구. *한국노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4.
- 이죽내 (2011). 용의 분석심리학적 심리치료 개관. *가족과 상담*, 1(1), 41-70.
- 이진숙 (2010). 가족대안으로서의 농촌 독거노인 생활공동체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2(1), 95-119.
- 이진숙, 최원석 (2014). 남성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경로 연구: 성역할태도, 사회서비스 이용정도, 자아존중감, 삶의 질 관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6, 377-404.
- 이형하 (2005). 대도시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인의 공동체 의식 관련요인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28, 231-254.
- 임선영 (2018. 4. 17).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실버 택배’로 해법 찾았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544986>에서 2018년 5월 2일 인출
- 장수정 (201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돌봄 공동체 사례 연구. *한국여성학*, 28(2), 1-31.
- 전형남 (2017. 11. 2). 김광수 의원,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전북도*

- 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896>에서 2018년 3월 10일 인출
- 정규형, 최희정 (2016). 농촌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5-38.
- 정석규, 임유진, 황소영 (2006). 한국 사회의 고령자 고용활성화 방안 연구: 시니어클럽의 기능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 28(1-2), 83-105.
- 정영숙, 조설애, 안정신, 정여진 (2012). 한국 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가족관계와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9-41.
- 정인수, 박선희, 윤혜림 (2012). 농촌지역 독거 노인 생활공동체 거주만족도.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4(1), 9-20.
- 지경 (2011).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문화의 공동체적 가치. *플랫폼*, 30, 22-27.
- 진영선, 김영경 (2011). 기억 향상 요소를 강화한 노인 집단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노년학*, 31(2), 401-417.
- 최영갑 (2009). *논어1*. 서울: 펭귄클래식코리아.
- 최외선 (2007).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4), 755-773.
-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대전: 통계청.
- 협동조합. (2018). *협동조합설립절차*. 경기: 한국사회기업진흥원.
- 협동조합. (2018). *협동조합설립현황*. 경기: 한국사회기업진흥원.
- Bitzur, A., & Fisher, E. (2018).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The struggle against loneliness in old age: Basic assumptions for an integrative operational concept-The Israeli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Studies*, 4(1), 82-106.
- Buber, M. (2001). *나와 너*. 표재명(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본 발간일, 1923)
- Clarke, L. H., & Lefkovich, M. (2018). 'I don't really have any issue with masculinity': Older Canadian men'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embodied masculinity. *Journal of Aging Studies*, 45, 18-24.
- Collings, P. (2001). "If you got everything, it's good enough":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in a Canadian Inuit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6(2), 127-155.
-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orienta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Y: McGraw-Hill.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Ely, M. (2006). In-forming re-presentations. In D. J. Clandinin (Ed.),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pp. 567-598). California: Sage.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Oxford: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renade, L., & Boldy, D. (2008).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mong older people: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in community and residential settings. *Australian Health Review*, 32(3),

- 468-478.
- Hays, J. C., & George, L. K. (2002). The life-course trajectory toward living alone: Racial differences. *Research on Aging*, 24(3), 283-307.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Jeon, G. S., Jang, S. N., Rhee, S. J., Kawachi, I., & Cho, S. I. (2007). Gender differences in correlates of mental health among elderly Korean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5), S323-S329.
- Johnson, K. J., & Mutchler, J. E. (2013). The emergence of a positive gerontology: From disengagement to social involvement. *The Gerontologist*, 54(1), 93-100.
- Jung, C. G. (197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slbeck, J. W., McCorkle R., & Schaeffer, D. (2012). Chronic illness self-management while living alone in later life: A systemetic integrative review. *Research on Aging*, 34(5), 507-547.
- Lee, H. J. (2011). Rediscovering a path to aging in place: Development of housing cooperatives for rural elderly. *Architectural Research*, 13(3), 31-40.
- Liebow, E. (1993). *Tell them who I am: The lives of homeless women*. NY: Penguin.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CA: Sage.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orrow-Howell N., & Freedman M. (2006). Introduction: Bringing civic engagement into sharper focus. *Generations*, 30(4), 6-9.
- Padgett, D. K. (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유태균(역). 서울: 나남출판사. (원본 발간일, 1998)
- Palmer, R. E. (2011).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이한우(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본 발간일, 1969)
- Schrive, J. M. (2013).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 실천: 패러다임의 경쟁과 전환.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회(역). 서울: 박영사. (원본 발간일, 2010)
- Seeman, T. E. (2000). Health promoting effects of friends and family on health outcomes in older adul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4(6), 362-370.
- Springer, K. W., & Mouzon, D. M. (2011). "Macho men" and preventive health care: Implications for older men in different social class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2(2), 212-227.
- Thompson Jr, E. H., & Whearty, P. M. (2004). Older men's social participation: The importance of masculinity ideology. *The Journal of Men's Studies*, 13(1), 5-24.
- Tyvima, T. (2011).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s in senior communities: The finnish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Housing Markets and Analysis, 4(3), 197-209.
van Manen, M. (2011). Phenomenologyonline.
Retrieved February, 15. 2018, from <http://www.phenomenologyonline.com>

1 차원고접수 : 2018. 07. 09.

수정원고접수 : 2018. 08. 24.

최종게재결정 : 2018. 08. 28.

A Phenomenological Study on Meaning and Essence of Cooperative Community Activity of Elderly Men Living Alone

Kim, Seo-Hyun

Qualitative Research HA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meaning and the essence of cooperative community participations of elderly men living alone. The study was analyzed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proposed by Giorgi(2009). The researcher selected eight elderly men as participants who are active member of cooperative community, conduct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and then organized and analyzed the raw data. The analysis showed that participants found new hope from the life disconnected from the world through activities of cooperative community and they became mature agent through communication. This was related to working together in communal activities and also to establishing a value-oriented social role for themselves. These activities were possible because they shared an intimate space together. We found that they could establish new identities by perceiving their own and each other's existence through cooperative community participations. They were comforted and encouraged by the cooperative community for their lonely times, and we can see that this was based on the self-potential they find in each other and their willingness to end their lives meaningful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discussed and made suggestions on aging meaningfully and building social cooperatives that are elderly centered and based on local communities.

Keywords: elderly men living alone, social cooperatives, community, phenomenological study